

# 일본해(동해) 해역 명칭에 대한 소견

袁樹人, 黃岩君

(중국 동북사범대학)

## <국문요약>

1990년대 이후로 국제회의에서 특히 동북아시아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일본해의 지리적 지명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각국과 이 바다를 연안에 둔 나라들 사이의 지역적 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 1. 문제제기

1.1 2차 대전이후 국제 정치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피식민지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 함께 협력하는데 참석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보였다.

1.2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해양자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발전과 한정된 육지의 자원에 대한 돌파구로서 해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3 경제활동의 세계화·지역화로 지역적인 국제협력이 왕성해졌고 동북아시아에서는 두만강 중류와 하류, 일본해의 연안국들 사이의 지역적인 국제협력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1.4 2차 대전후에 해양관리에 대한 여러 제반 사항이 변화하여 1982년에 UN은 해양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내륙으로 둘러싸인 바다, 군도로 이루어진 바다,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모든 나라들은 이 법에 승인을 했거나 이제 서둘러 승인을 하려하고 있다.

### 2. 중국 고대문헌에 나타난 일본해에 대한 지명의 변화상

唐 이전 시기(10세기 이전)를 살펴보면, 《后漢書》, 《三國志》, 《晉書》, 《唐會要》, 《庫頁附近諸島考》, 《朔方備乘》, 《新唐書》, 《續史方輿紀要》에서 특정 이름없이 '海(Sea)', '大海(Large Sea)'로 나타나 있다.

遼 와 北宋 시기(10~12세기)에는 《遼史·地理志·序》, 《三朝北盟會編》, 《乘輅錄》, 《元史·地理志》, 《海國圖志》, 《中國歷史地圖集》 등의 문헌에 '東海(East Sea)'로 표기되어 있다.

元 제국기와 明 시기(약 13-17세기)에는 《明太祖實錄》, 《元一統志》, 《環宇通志》, 《元代滿洲的疆域》, 《中國歷史地圖集》 《大學世界歷史地圖集》 《中國古代史地圖》에 '鯨海(Whale Sea)'로 실려 있다.

淸 시기(약 17-19세기)에는 《開國龍興記》 《盛京通志》 《三姓志》 《小方壺齊輿地叢鈔》 《朝鮮輿地說》 《東國名勝記》 《海國圖志》 《取悉寧爾始末記》 《吉林外記》 《中國歷史地圖冊》 《中國古代史地圖》에 북쪽 부분은 '東海(East Sea)'로 남쪽 부분은 '南海(South Sea)'로 나와 있다.

19세기 말엽, 20세기초 이후 《中外地輿圖說集成》 《庫頁島志略》 《中華民國新地圖》 《東南海島圖經》 《俄羅斯水道考》 《日本國志》 《庫頁島志略》 등의 문헌에 '日本海(Sea of Japan)'로 표기되어 있다.

### 3. 일본해의 지리적 지명논의의 복잡성

세계의 여러곳에서 동일 바다에 대해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표기한 선례가 있지만, 나라마다 바다에 대해 각각 자기 나라의 이름을 붙인다면, 일련의 바다들이 다시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 4. 우리의 견해

한 나라의 정치적 의도나 경향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양동물의 특징이나 지리적 위치 등에 기초한 이름을 채택하면 어떨까?

국제관습에 기초하고 통례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지명으로 되어야 한다.

학술적인 권위 특히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백과사전이나 지도에 나와있는 지명을 수용하는 건 어떨까?

일반적으로 승인되었고, 국제적인 판결에 따른 법을 따르는 건 어떨까?

단순하고 쉬우면서 편리한 이름을 지정하는 법에 따르는 건 어떨까?